

여성 성의학의 새로운 地平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여성성의학 연구회

고 민 환

New Spectra in Female Sexology in Korea

Min Whan Koh

*Department of Obstetrics & Gynecology and Female Sexology Research Group
College of Medicine, Yeungnam University, Taegu, Korea*

- Abstract -

The World Association for Sexology (WAS) will adopt a Declaration of Sexual Rights as basic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August this year in Hong Kong. Two years ago WAS has been developing a Declaration of Sexual Rights in order to further promote sexual health and protect the sexual rights of everyone. Undoubtedly sexuality is one of the most intriguing subjects in the area of human behavior and psychology, and has been so since antiquity. The influence of sexual factors of human on all aspects of the society has been immense. The varieties of marriage, from traditional to the open marriage model are presented in front of our sight.

The influences of women's movement in Korea, which has produced sexual, psychological, economic, political, familial and social changes look so small and the changes are not that much in America. But the profound effects of the women's movement affect on Korean society being realized as man's view of woman and woman's view of herself undergo constant change and reevaluation.

With increased sexual awareness on the part of the public owing to mass media, for example AH-U-SFONG aired in TV and with increased emphasis on sexual matters in daily life, more and more physicians are being asked to deal with and manage sex-related problems in their daily practice. Yet, despite the obvious need for informed sexual counseling, doctors are often uncomfortable about sexual matters and many physicians have no special expertise in this area. So physicians concerned in sexology especially such as gynecologists, urologists, psychiatrists and endocrinologists must realize well about sex-related knowledge which is needed for counseling the patient as medical consumer and

gap between reality and ideality in sexual diagnosis and treatment.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for the people who have sexual problems is strongly needed to promote sexual health and protect the sexual rights of everyone and for the Sexual Rights as basic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Key Words: Female sexology, New spectra, Korea

여성 성의학이란

여성 성의학(female sexual medicine 또는 female sexology)은 여성의 성을 다루는 의학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여성의 성은 무엇인가? 우리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여성의 성의 실체는 과연 있는 것인가? 반대되는 성에 부수되는 의미로서의 성이며, 나약하고 소극적이며 수동적인 의미의 성, 솔직하면 안되는 그런 의미의 성이 아니었겠는가? 여성 성의학은 아직 그 의미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떠오르지 않는 불분명한 학문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사회적, 가정적, 문화적으로 아직 여성의 성역할이 남녀간의 관계에서 정당히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생각에 따라 그 범위가 매우 신축적이다. 따라서 그 범위는 매우 넓을 수도 있고 좁을 수도 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즉, 남녀간의 관계라는 측면과 독자적인 인간인 개체로서의 여성 자신이라는 측면에서의 성역할 또는 성개념이 뚜렷해져야 여성 성의학의 윤곽이 보다 확정적이 되어 학문의 영역을 쉽게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 성의학이라 하면 먼저 남성의학 또는 남성 성의학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떠오르게 마련이다. 최근에 비아그라의 개발로 남성 성의학의 대부분의 난제가 해결된 듯이 보여 관심을 끌고 있지만 여성 성의학은 세간에 그 개념조차도 뚜렷하지 못한 처지에 놓여 있다. 세간에서 관심을 보이는 여성의 성문제란 기껏해야 출산후의 질의 손상에 의한 수축력문제와 요실금문제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들이 성에 대해 가지는 관심과 걱정은 지대하여 60%의 여성이 자신의 성문제로 걱정을 하고 있다(Frank 등, 1978; Michael 등, 1994). 3분의 1 정도의 여성이 성에 관심이 없으며, 20%가 성이 즐겁

지 아니하다고 말하며, 15%가 성교시 통증을 호소하고 많으면 50% 정도까지의 여성이 성적 흥분이 생기지 않아 어려움을 느끼고, 50%가 극치감에 이르기 힘들며 25%에서는 극치감을 느껴보지 못했다고 한다(Baram, 1996). 한국에서도 1988년말의 갬럽 여론 조사에 의하면 20대와 30대 주부의 30% 정도가 성적인 불만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여성 성의학이란 여성의 성에 관련된 모든 것을 말하므로 기질적인 문제와 기능적인 문제들을 모두 아우른다고 하겠다. 기질적인 문제들은 여성생식기 질환들과 이에 관련된 문제들을 말하므로 주로 부인 과적인 질환들을 포함하며 비뇨기관 및 배변기관과 관련된 제 질환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으며 이들 각각의 질환들은 현재 관련 과에서 진료가 훌륭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되나 그 다루는 영역이 제한적이어서 의료 수요자들인 환자들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기능적인 문제는 결국은 성적인 문제, 좀더 국한하여 표현한다면 성기능적인 문제들이라 하겠다. 성기능적인 문제의 일부는 정신과 의사들 중 관심있는 분들이 정신과적인 성치료를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이유들로 인하여 환자들이 의사에로의 접근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활발한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외국의 보고에서도 많은 여성들이 성문제가 건강문제로서 중요한 점은 인정하지만 성문제를 의사와 상의하기를 꺼리고 있으며, 의사들 또한 환자들과 성대화를 나누기를 불편해 하는 사람이 많다(Ende 등, 1984).

의사들 중에는 환자들에게 성에 대해 묻는 것이 환자들을 괴롭히는 것이며 자기가 얻은 자료들도 환자를 치료하는데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더구나 환자의 성문제의 치료에 자신이 없다고 느끼거나 성 병력을 청취하는데 시간이 너무 없다

거나 환자와 상담하는 자체를 불편해 하는 의사들도 없지는 않다(Bachman 등, 1989). 그러나 환자들은 의사가 성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기를 기대하며 부인과 문진시 성에 대한 질문 받기를 기대한다(Ende 등, 1984).

가장 큰 문제점은 기질적인 문제가 성기능에 저해를 가하는 경우들인데 이런 경우는 환자들 자신이 호소하기를 주저하고 매우 개인적이며 은밀한 일이라고 치부하여 남에게 말하기를 꺼리고, 의사들에게조차 무관심과 무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어 설명 환자가 불편을 호소하더라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어느 면에선 개방적인 대화 자체가 조금은 유란해 보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피차간에 조심스런 부분이 없지 않다. 필자는 최근 의학 지식과 의료영역의 틈새인 이런 부분의 해결점에 대하여 생각한 결과 결국은 이 문제의 실마리는 의사가 먼저 풀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상의 기술에 의하여 여성 성의학은 광의로는 여성의 성에 대한 모든 의학적인 것이지만 협의로는 기질적인 문제가 성기능적 현상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기왕에 존재하는 지식들을 재편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성의학적 연구를 하여 성기능적 측면에서 의료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이 분야 연구의 목적이라 하겠다.

여성 성의학의 분야

여성성의학이 다루어야 할 분야를 표로 나타내었다(표1). 표에 나타난 질환들에 대한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연구가 여성 성의학의 분야들이라고 생각되는데 분야가 비교적 광범위하나 이들 중 몇 가지의 질환들은 개별적으로는 현재 관련 과에서 진료가 훌륭히 이뤄지고 있다.

예를 들면 부인과에서 자궁과 자궁부속기의 질환들-염증, 난소낭종, 자궁근종, 유착이나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과 이로 인한 성기능의 문제들은 비교적 잘 진단 치유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요실금의 경우도 비뇨기과 분야에서 활발히 치료가 이루어

Table 1. Subjects dealing in female sexual medicine

Vulva and vagina
Itching
Pain
Uterus and adnexae
Adenomyosis, myoma, PID
Endometriosis
Adnexal tumors
Pelvic organ prolapse
Pelvic pain (골반통)
Dyspareunia (성교통)
Urinary incontinence (요실금)
Sexual dysfunction (성기능장애)
Orgasm dysfunction
Libido dysfunction
Genital surgery (성기 성형술)
Anomaly correction (기형보정술)
Sexual conversion (성전환술)
Sexo-pharmacology (성약물학)
Geriatric sexology (노인 성의학)
Onco-sexology (종양 성의학)
Sexual rehabilitation (성재활)

져 왔다. 그러나 외음부나 질의 소양증, 통증의 문제들, 만성 골반통이나 성교통등의 문제들은 의사들에 의해 심지어는 환자 자신들에 의해看過되어온 점이 있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불편하지만 학문적으로 또는 의료적인 면에서 가볍게 처리되어 온 감이 없지 않다. 또 증상은 비교적 미약하나 사회생활이나 성생활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더욱 방치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환자의 발굴이 쉬운 부인과 의사들부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 하면 여성환자들의 부인 과적 사소한 증상들의 많은 부분이 심신의학적 증상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오직 부인과 의사들만이 부끄러운 여성 의료 수요자들을 일깨워 의료 수혜의 영역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외음부 질환에서 소양증, 염증같은 단순한 질환들도 단면적(單面的)인 진단과 치료에만 신경 써 소홀이 다루어 온 감이 있으나 성생활 또는 성기능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료가 이루어 진다면 환자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와 의사의 치료 성취감이 동시에 고양(高揚)되리라 사료한다. 척추손상에 의한 성불구 배우자를 가진 부부에서의 성생활과 임신

에 대한 지도와 진료는 성생활의 분야로 그들 부부에 있어서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기회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성의학의 매우 중요한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여성 성의학과 팀웍

여성 성의학은 여러 전문가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라 하겠다. 부인과, 비뇨기과, 정신과, 내분비전문의, 성 상담사들이 협동적으로 작업하여야 하는데 여지껏의 진료가 각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의료 요구자 수요자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점이 있었다. 여성 성의학에서는 부인과의가 이들 관련자들의 리더가 되어 요구자의 문제점을 파악 발굴하고 적정 전문가에게 배치하여 적절한 치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많은 환자들이 본인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비좁하기 때문에 의사가 발굴 파악하여 깨달아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스스로의 문제점을 알고 의사에게 호소할 때에는 의사에 의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느끼도록 하여야 한다.

성의학 치료 계획의 단계

1. 환자의 인지 및 분석

의사인 우리가 접하는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 중 성의학적인 문제와 결부된 문제를 호소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환자 스스로 자신에게 문제점이 있음을 알려주고 본인의 문제점 인식의 정도를 파악한다. 그리고 적정 담당의에게 인도한다.

2. 진찰 및 검사

석정 담당의에 의하여 진찰 및 검사를 받게 하여 치료 목표를 정한다.

3. 치료 및 추적관찰

환자의 경우에 해당되는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추적관찰을 통하여 치료 성과 및 본인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치료방법에 대한 지식을 축적한다.

여성 성의학의 사회적요구

현시점에 있어 성의학 특히 여성 성의학의 중요성은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하겠다.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여성의 역할 다시 말하면 지위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호전된 상태에 있으며 그에 따른 여성의 요구 또한 증대되어 과거처럼 여성이 약한 존재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한 가정에서 성의 갈등을 해소하여 긴장을 해소한다면 삶의 질과 사회적 갈등의 측면에서 순기능이 돋보이며 모두가 성의학의 발전을 갈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 제 9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고 하여 여성에 대한 불평등적인 사회적 인습과 편견을 부정하고 행복추구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32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 ……” 라고 하여 누구나 인간으로서 복지를 누리고 살 수 있음을 권리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여성이 성기 질환 및 기능 장애로 인한 불유쾌함, 우울증, 이에 기인한 심신장애등 때문에 인간답게 사는데 장애가 되고 복지증진에 장애로 인식된다면, 이 성의학적 문제들은 당연히 국가가 개인의 행복과 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대상이라고 사료된다.

환자 평가의 특수성

여성 성의학에서의 환자의 평가는 다른 의료의 분야보다도 보다 포괄적이며 특수한 면을 많이 갖고 있다. 기본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자 자신이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오인하고 알더라도 부인하고자 하며 가르쳐 주더라도 받아들이기를 꺼린다. 즉 환자의 인지 단계에서 의사가 환자의 호소에 의해 성문제를 알아 내기 보다는 의사의 환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노력 중에 알아 내는 수가 많고, 환자가 자기의 증상을 다른 병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며 의사에 의해 알게 되더라도 받아들이기 보다는 거부하고자 하는 경향이 더 많다

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적인 배경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진료를 어렵게 하는 요소이다. 전문가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성의학적인 평가는 포괄적이다. 의료진의 팀웍에 의하여 보다 나은 진료가 가능하며 환자의 문화적, 사회적, 가정적 환경, 직업, 경제상태, 취미나 소질, 배우자의 성향이나 상태등을 모두 평가함으로써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다.

치료의 측면에서도 기질적인 면은 물론 중시하지만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고려하여 여러 과가 환자 위주로 다루어 준다면 개인적인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이 많이 사그러 질 수 있을 것이다. 임상 의들이 환자의 현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찾아 내어 다루고 시정하여 줄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하여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제 언

부부사이에 심각히 대두되는 성문제를 다루어 줄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마땅한 대안은 있는가? 기왕의 이론과 기법으로 성문제를 다루기에 합당한가? Kinsey와 존슨과 마스터즈 박사의 연구는 이미 고진이 될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적 불만 치료의 범주는 그들의 영역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엔 좀더 기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치료의 성과를 높이어 환자들의 성적불만과 관련된 기질적 실환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성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적, 정서적, 정신적요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성적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하여는 부인과적 접근과 정신과적 접근법의 결합 내지는 융합이 필요한 시점에 다달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여러 전문가의 협동이 절실이 요구되는데 부인과의가 이들 관련자들의 리더가 되어 요구자의 문제점을 파악 발굴하고 적정 전문가에게 배치하여 적절한 치료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Bachmann GA, Leiblum SR, Grill J. Brief sexual inquiry in gynecologic practice. *Obstet Gynecol* 73: 425-7, 1989.

Baram DA. Sexuality and sexual function. In Berck JS, Adashi EY, Hillard PA: *Novak's gynecology*. 12th ed, Williams and Wilkins, Baltimore, 1996, pp279-298.

Ende J, Rockwell S, Glasgow M. The sexual history in general medical practice. *Arch Intern Med* 144: 558-61, 1984.

Frank E, Anderson C, Rubinstein D. Frequency of sexual dysfunction in "normal couples". *N Engl J Med* 299: 111-115, 1978.

Michael RT, Gagnon JH, Laumann EO, Kolata G. *Sex in America*.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1994, pp6-9.